

## 흰 장갑에 순백색 꽃의 부케(bouquet)를 든 신부

### 1. 웨딩드레스(wedding dress)

서양식 결혼식에서 신부가 착용하는 의상의 총칭, 프랑스어로는 로브 드 마리에(robe de marie)라 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로마인은 신부가 불꽃색의 베일을 쓰고, 기독교 교도는 백색 또는 보라색 의상을 입었는데, 18세기 이후 백색을 입는 습관이 계속되면서 결정적인 결혼의상이 되었다. 다만 재혼의 경우는 블루, 핑크 등의 옅은색을 입었다.

디자인은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신부의 취향대로 선택하는데, 서양에서는 주로 결혼식이 교회의식으로 거행되므로 노출을 피하도록 만들어진다. 따라서 하이 네크 아니면 기본 네크로 하며, 소매가 짧은 경우에는 흰 장갑을 길게 낀다. 또 장식이나 절개선에 의한 모양보다 전체적 실루엣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긴 원피스에 트레인(train)을 바닥에 끌리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소 짧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셔츠나 미니의 것도 선보이고 있다. 그 밖에 드레스 실루엣의 효과를 위해서는 속옷도 맞추어서 입어야 하며, 머리에는 흰색꽃(본래는 오렌지꽃) 장식에 베일을 늘이거나 웨딩 햇(hat)가 사용되기도 한다.

액세서리로 진주, 다이아몬드의 네크리스를 많이 쓰고, 구두는 흰 새틴이나 드레스와 같은 천으로 만든 것을 신고, 흰 장갑에 순백색 꽃의 부케(bouquet)를 든다. 부케는 주황색이 정식이라고 하나 보통 카네이션, 장미, 프리지어, 양란 등의 백색 꽃을 든다. 드레스는 새틴, 태피터, 시폰, 레이스, 오건디 외에 화학섬유직으로도 만들고 겨울에는 벨벳을 쓰기도 한다.

### 2. 한국의 근세와 현대 예복

조선 후기 서세동점과 함께 쇄국정책을 표방한 한국에도 개화의 물결이 들이닥치고, 갑오개혁(1894년)과 더불어 근대화의 제 1보를 내디디게 되었으

니, 관복의 간소화도 사회개혁의 하나였으며, 이듬해 을미개혁에서는 단발령과 함께 의복제도는 외국제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여 여기서 “체두양복(剃頭洋服)”의 과정을 밟게 되었고, 5년 후인 1900년(광무4년)에는 구미식 문관복장 규칙을 제정하였던 바, 대례복은 영국 궁중예복을 모방한 것이었으며, 소례복은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일반 시민예복인 연미복 또는 프록코트였고, 평상복에는 구미에서 착용하던 시민평복인 신사복(civil clothes, 미국명은 sack coat)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고위 관료층에나 적용되었던 것이며, 더욱이 여성에게 양장은 아직 이른 것이어서, 당시 양장한 고종비인 엄비의 사진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부부동반 등 남녀가 공적인 장소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관혼상제 등에 있어 여전히 구습을 쫓았고, 따라서 그 예복은 간소화되었을 망정 옛 범주에서 그다지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나라의 주권을 잃은 후 반상의 구별도 표면상으로 없어진 가운데, 양복, 양장이 우리 의생활에 보급됨에 따라 예복에 양복, 양장이 등장하여 결혼식의 경우 신식혼인이라 하여 신랑은 연미복, 신부는 웨딩드레스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신부가 시집 어른에게 폐백을 올릴 때는 신랑은 사모관대, 신부는 족두리, 원삼 또는 화관, 활옷 차림을 한다. 그러나 신식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신랑은 평상복으로서의 양복을 예복대신 입고, 신부만이 서양 예복인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폐백을 올릴 때는 예식장에서 사모관대와 원삼, 족두리를 빌려 입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다.

상례에 있어서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장례와 복을 입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상주의 경우 8.15광복 후에도 당분간은 착용되어 오던 옛 상복이 사라지고, 남자는 평상적인 양복에 마포로 만든 건을 쓰고 베로 된 완장을 두르는 정도가 되었고, 여자는 흰색 옥양목이나 무늬 없는 흰색 화학섬유 등으로 치마, 저고리를 지어 입어 깃옷(베나 깃광목으로 지은 옷)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여유 있는 집에서는 남자의 경우 검은색 양복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유교에서 연유된 우리 제례는 옛 어른들이 없는 가운데 많이 변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은 간단한 추모식 정도로 끝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행사 가운데서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생활에서 뚜렷한 예복을 찾기란 힘들게 되었다.

### 3. 턱시도(tuxedo)

남자의 약식 야회용 예복을 일컬으며, 턱시도 코트의 준말로 미국 뉴욕의 턱시도 파크에 있는 컨트리클럽 사교계의 신사들이 1880년경 남자의 정식 예장인 모닝 코트 대신에 약식 예장으로 안출해서 입었던 데서 비롯된다. 영어의 디너 재킷에 해당하며, 드레스 라운지라고도 했다. 보통 신사복과 같은 스타일인데, 웨이스트선 가까이까지 길게 늘어지게 꺾어 져히는 를 칼라나 라펠이 달려 있고, 이것을 새틴 같은 견직물로 선을 두르거나 써서 마무리했다. 단추는 1~2개이고, 항상 앞을 터 놓고 입으며, 등판은 1장의 천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끝이 뾰족한 피크트 라펠(peaked lapel : 칼깃)로 앞이 더블로 여며지는 것도 있고, 커머번드(cummerbund : 일종의 복대)나 베스트 등을 단 연예인들이 입는 스타일도 있다. 다양한 색이 쓰이나, 원래는 검정이나 진한 감색이 기본이고, 여름에는 상의는 흰색 마직을 쓰기도 하나 이때도 바지는 검정을 입는다. 바지에는 옆에 길이로 비단 선을 대기도 한다. 이렇게 정장을 할 때는 보통 검정 보타이(bow tie)를 맨다.

### 4. 모닝코트(morning coat)

주간에 입는 남자 정식예복으로서 관혼상제의 어느 경우에라도 착용하며, 그 이름대로 저녁부터 밤에는 입지 않는다.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모닝코트의 상의는 검정 도스킨(doeskin)이나 캐시미어를 이용하고, 깃은

노치트 라펠(notched lapel)이며 웨이스트에 솔기가 있고, 뒷길은 무릎까지 오며, 앞길의 자락이 좌우로 깊게 패어서 바지 앞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싱글로서 단추는 하나를 다는 것이 보통이다. 바지는 검정이나 회색의 줄무늬 천을 쓰고 조끼는 상의와 같은 천을 쓴다. 셔츠는 흰색이며 앞 끝이 꺾인 칼라를 달고, 넥타이는 흑, 백의 줄무늬를 착용한다. 본래는 프록코트 대용의 반예복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식 예복으로 되었다.

## 5. 보타이(bow tie)

목에 두르는 넥웨어의 하나인 나비 넥타이를 말하고, 처음부터 나비모양으로 접어놓은 것과 긴 끈으로 나비형을 만든 것 등이 있다. 미리 접어놓은 타이는 클립 온 보타이(clip-on bow tie)라고 하는데, 뒤에 붙인 밴드의 끝을 클립 여밈으로 하여 붙일 수 있게 하였다. 비아네스라 부르기도 한다. 나비형을 만드는 방법은 폭 2cm 정도인 넥타이를 우측 편으로 돌려 좌측에 맨 다음 좌측 끈을 S자 모양으로 정돈하여 우측 끝을 깃 부분의 중심부에 접어서 끼워 넣은 후 가지런히 잡아당기면 나비 형태의 리본 매듭이 된다.

대체로 보타이는 드레스셔츠의 강력한 포인트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색체의 조화를 이용하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더욱 돋보인다. 보타이는 목 적이나 장소에 따라 유의하여 착용하는데, 보통 격식 있는 모임 등에 나갈 때 유려피안 트레이디셔널 슈트, 연미복 등에 착용한다.

야간의 포멀웨어와 함께 신는 드레시한 펌프스(pumps)의 정면에 작은 보타이를 붙이기도 한다. 털실로 리본처럼 짜서 두루마리로 감은 천을 자신의 사이즈에 맞추어 적당히 가위로 잘라서 매는 타이인 살몬 보타이(salmon bow tie), 매듭의 끝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스퀘어 보타이(square bow tie) 등이 있다.